

전시 기능 벗어나 관람객 이해 돕는 '교육의 장'으로

박물관·미술관이 진화하고 있다

지역 박물관·미술관이 진화하고 있다. 종전 소장품을 보관·전시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15~12월20일까지 매월 1, 3, 5주째 토요일에는 개관 시간을 2시간 연장해 밤 9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에는 큐레이터들이 관람객을 직접 만나 보관 유물과 전시회를 설명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큐레이터로부터 특정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람객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15일 첫 번째 시간에는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이 직접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국보 제143호)의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내년에는 디지털 세대 관객 눈높이에 맞는 각종 멀티미디어 교육 장비를 들여오는 리모델링 공사에 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54.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도 올해부터 전시회를 여는 작가나 큐레이터들이 관람객들을 만나 작품을 설명하는 '작가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권기수, 김일용, 김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을 찾은 관람객들이 큐레이터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 토요일 2시간 연장 개관

광주시립미술관 '작가 큐레이터와 대화'

해양유물전시관 '바다문화학교' 15회 개강

하, 박영숙, 유근택, 윤 익, 장지아 씨 등이 참여하는 기획전시 '별날은 간다'의 식전 행사로 작가와 관

객의 만남 시간을 갖는다.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4~6월1

일까지 열리는 '자연은 내 친구, 박태규·김희련 생태미술 말놀이'전에는 부부 화가인 박태규·김희련씨가 참여해 생태 미술에 대해 설명한다. 4월12일과 26일, 5월10일과 24일에 이들 작가들의 교육이 진행된다. 문의 062-510-0144.

조선대박물관(관장 이종범)도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제2기 우리 땅이 온통 학교' 강좌를 개설한다. 정림사지 5층석탑, 김유신 장군묘 등 백제, 신라 문화권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배움터이다. 4월26일, 5월10~11일, 5월24일, 6월14일, 6월28일 등 5회에 걸쳐 교육이 이뤄진다. 문의 062-230-6067.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월11일~7월18일까지 15회에 걸쳐 '제17기 바다문화학교'를 개강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고려청자의 제조 과정과 청자 문양, 도자기 감정과 신안선 발굴 등 수중 고고학을 통해 찾아낸 문화재에 대해 교육한다. 문의 061-270-2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왕제색도·금강전도가 움직인다

설치작가 이이남씨 서울초대전

'미디어 아트'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이남씨가 오는 18~31일까지 서울 박여숙화랑에서 14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등의 고전 작품을 LCD 모니터 속에 넣은 뒤 원래의 그림이 움직이게 하고, 주변에는 눈이 내리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또 모네의 '해돋이 인상'을 소재로 한 비디오 작업에서는 움직이는 배를 통해 밝아오는 항구의 아침을 표현했다.

10여년째 독특한 영상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개관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이이남 작 '묵죽도인'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해외 활동을 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중섭 유화 2점 경매에 첫 선배

'새와 애들' '어린이와 ...' 25일 서울옥션 경매에 출품

서울옥션이 25일 실시하는 올해 첫 메이저 경매에서 이중섭의 유화 2점이 나온다. 이중섭의 유화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이번 110회 경매에 출품되는 이중섭의 유화 '새와 애들'은 아이 3명과 새 2마리가 뒤엉켜있는 모습을 그린 1953년 작품으로 49.2x33.5cm 크기다. 추정가는 15억원.

또다른 유화 '어린이와 새와 물고기'(25.2x35.7cm)도 비슷한 분위기로 추정가는 10억원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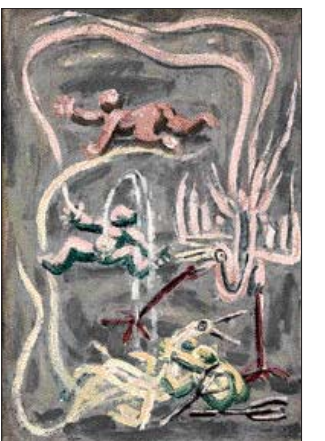
서울옥션은 이 작품들은 이중섭이 1952년 가족과 헤어진 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작품 완성도가 가장 높아진 시기에 그려졌으며 철저한 감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이중섭의 작품은 대부분 채색화 또는 담배노박지에 그린 은지화, 드로잉 등이었다. 2005년 3월 경매에 나왔다가 위작과동을 일으킨 작품

들, 2006년 12월 서울옥션과 K옥션 경매에서 재등장한 이중섭의 작품들은 모두 채색화였다.

이번 경매에서는 박수근의 '노상의 사람들'이 추정가 10억~15억원, '귀로'가 추정가 5억~8억원, '묵림'이 추정가 3억~4억원에 출품되며, 이우환의 '점', '조용' 시리즈도 나온다.

해외작품으로는 데미안 허스트의 대형 점 그림 1점이 추정가 16억원에 나오고, 마르크 샤갈의 작품 '파리 하늘의 연인'은 13억~18억원에 출품된다. 경매는 25일 오후 5시부터 평창동 서울옥션 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이중섭 작 '새와 애들'

최수정씨 작곡 발표회 내일 문예회관

전남대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한 최수정(사진)씨는 지난 2000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피바다 음대에서 석사를 받고, 지난해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최씨는 미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최씨가 그간의 공부 성과를 선보이기 위해 잠시 한국에 들렀다. 최씨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작곡발표회를 갖는다. 지난 7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열렸던 공연에 이어 두번째 무대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목관 5중주곡 '파생', 현악 사중주곡 '말, 말, 말...',



최수정씨

헤르만 헤세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안개 속에서' 함께 연주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오르간과 클라리넷을 위한 '기도와 변화'를 들려준다.

지난해 주미 한국대사관 주최 새정부 출범 기념 음악회에서 연주했던 모든 곡의 편곡 작업을 맡았던 최씨는 "앞으로 기악곡, 합창곡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과 뮤지컬 등도 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야생화로 피어난 70代 '문학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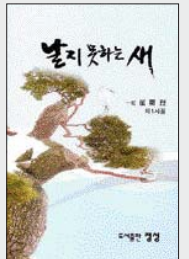
최현열씨 첫 시집 '날지 못하는 새' 출간

"제 시를 길가에 핀 야생화로 봐주세요."

고희를 넘긴 나이에 노익장을 과시하며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노 시인이 있다. 작가 최현열(74)씨가 첫번째 시집 '날지 못하는 새'를 출간했다.

저자는 무박한 글쓰씨이지만 칠십 평생을 살며 깨달은 삶의 진리와 평범한 일상을 평온하고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최씨는 "내 땅은 박질이어서 시가 잘 자라지 않지만 심혈을



최현열씨 시집 '날지 못하는 새' 표지

기울어 열심히 가꾸고 싶다"며 "해가 갈수록 손이 더 떨 리지만 당 연 필을 꼭 쥐고 하얀 노트 위에 시를 쓰겠다"며 창작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블랙코미디 '돈내지 맙시다' 무대에

15~16일 광주 동궁예술극장

노벨상 수상작가 다니엘 포의 '돈내지 맙시다'는 이탈리아 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과도 맥이 닿아 있는 블랙 코미디로 국내에서도 자주 공연된다.

극단 예민이 '돈내지 맙시다' 무대에 올린다. 15~16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 광주 동궁예술극장. 날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민하던 주부들이 어느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오기 시작한다. 갑작스런 남편 조난의 출현에 당황해 친구 마가리타의 뱃 속에 물건을 감춘 인토니오는 마가리타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댄다. 문제는 이 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난데 없는 임신



소식은 계속되는 거짓말을 놓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생필품을 훔친 조난니와 남자들의 상황과 슈퍼마켓 약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까지 얽히면서 일은 점점 복잡해진다. 극단 대표 윤여송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동민·김민선·김환수·신희원·김진엽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34-22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 theaters in Gwangju. It features a banner at the top with the text 'Happy Time 영화안내' and logo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and Mudeung Cinema. Below the banner are six column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theater and listing their current movie programs. The theaters are: Megabox (1544-0600), Enter Cinema (228-2700), Columbus Cinema (1588-7941), Seniors Cinema (1544-0070), Mudeung Cinema (1588-9101), and Jeil Cinema (227-1960). Each column lists movie titles, genres, and showtimes.